

◇... 유암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보고되고 있고 미국
 ◇...에서는 일생동안 10명의 여성중 한명이
 ◇...유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
 ◇...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라의 여성에서는 자궁암, 위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조사되고 있고

전체암의 9%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
 ◇...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유암의 발...◇
 ◇...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간혹 보...◇
 ◇...고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적인 근거는...◇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으나 유암의 발...◇
 ◇...생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를 뒷...◇
 ◇...받침할 만한 증거가 적지 않다. ...◇

아주 작은 덩어리가 유륜 부위
 에서 만져지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유방암은 임상증상이
 다양하지만 약 90%의 환자는
 유방의 종괴를 호소하는데 보통
 단일성이고 일측성이며 견고하고
 불규칙적인 모양과 표면을
 가지며 무통성, 무압통성의 입



崔國鎮

(서울醫大 內科外科學) 專攻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자가검
 진, 외과의의 진찰, 유방조영등
 을 통해 유방의 이상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
 다. 간혹 수술이 가능하거나 복
 합화확요법으로 치유가 가능합
 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민
 간요법이나 종교적인 방법에
 맡겨 버려 소중한 시간을 놓치
 고 병원을 찾는 환자를 보게
 되는데 이는 현대의학이 암의
 치료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한
 현실적에서는 안타까운 일로
 일단은 전문의의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한
 다.

의학의 기초연구분야에서는
 유암의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
 러한 노력의 결과로 암의 발생
 에 관계하는 암유전자들이 일부
 밝혀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 암의 기원과 형성을 정확히
 밝혀내는 데에는 더욱 많은 연
 구와 긴 세월이 경과 하여야
 실현될 것으로 짐작된다.

단지 이러한 연구의 과정 중
 일부 밝혀지는 유전자나 단백
 질등을 이용하여 종양표지로
 이용함으로써 암의 조기 진단에
 이용하거나, 암의 예후인자로써
 그 가치를 밝혀내어 치료 방침
 의 결정에 이용할 수가 있으며
 그밖에 병변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보다 예민한 영상기구
 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일에 응
 용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유암
 이 점차 더욱 늘어나리라는 전
 망이다. 그렇지만 유암은 비교
 적 치료에 잘 반응하는 암이고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성 자신이 본인의 유방에 관
 심한 가지면 조기에 암을 발견
 하여 암의 치유는 물론이고 유
 방의 모양도 간직할 수가 있는
 것이다.

乳 癌

조기 발견하면 90% 이상 치료됨 : 轉移癌의 경우 50% 이상 효과 나타내

들이나 최근 보험관리공단의
 계몽사업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정도이다.
 유암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첫째로 권장하는 것은 유방의
 자가 검진으로써 본인이 유방에
 생긴 이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시기는 한달에 한번정도 경
 도가 끝난 후 일주일 경에 목욕
 시 하는 것이 좋고 그 방법으
 로는 거울앞에서 우선 좌우 유
 방의 대칭 상태를 살펴보고 몸
 을 움직이며 유방의 모양의 변

患者 90%는 유방종괴가 主症狀

화, 유두나 피부의 함몰등의 유
 방의 이상을 조사해 본다.
 다음에는 손가락을 펴 세손
 가락으로 좌우 유방을 안팎으로
 구석구석 촉지해본다. 이때 유
 방을 움켜쥐지 말고 가슴을 향
 하여 유방을 누르며 촉지하도록
 한다. 촉지하며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지 유두의 분비물이
 있는지도 관찰한다. 목욕시에는
 비눗물을 묻혀 촉지하면 멍울이
 더 잘 만져질 수 있다.
 자가검진 시 양쪽 겨드랑이도
 반드시 촉지해 본다. 그리고 35
 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매년 정
 기적으로 외과전문의를 방문하
 여 진찰을 받고 또 유방조영을
 권하고 있다. 특히 유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유암의 가족력이
 있는 여성들은 6개월에 한번
 정도의 더욱 빈번한 정기 검진
 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자가검진이나 정기검진
 등에서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일으켰을 때에만 입체적인 덩
 어리로 만져지고 섬유이형증
 (fibrous dysplasia)이나 선종증
 (adenosis)등에서는 넓게 평면
 적으로 만져지는 것이 보통이
 다. 이 질환은 어느 연령에서나
 생길 수 있지만 호발연령은 20
 세에서 50세 사이이다.
 섬유선종은 입체적인 덩어리
 로 만져지고 잘 움직이며 대개
 표면이 매끈하고 통증이나 압
 통이 없는 덩어리로서 보통 20
 대 및 30대의 젊은 여자에게
 호발한다. 약 20%가 다발성이며
 10%는 양측성이다. 보통 모양
 및 크기의 변화가 별로 없이
 오랜 기간 동안의 병력을 가진
 다. 다만 최근에 갑자기 커지거
 나 유방 전체를 침범하는 경우
 는 드물지만 악성인 엽상낭육종
 (cystosarcoma phyllodes)을 의
 심하여야 한다.
 유관내 유두종은 보통 혈성
 유두분비물을 주소로 하나 드
 물게는 유두성이며 통증이 없는

이 주요치료방법이나 최근에
 조기 유암에서는 국소절제와
 방사선치료를 겸한 사부위절제
 술로도 근치유방절제술과 동일
 한 결과를 가진다고 밝혀짐에
 따라 조기에만 발견하면 유방의
 보존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방의 보존술식은 그
 대상을 잘 선별하여야 하며 비
 록 유방전절제를 하였더라도
 성형술을 시행하여 유방의 보존
 및 복원술에 대한 관심이 서양
 의 여러나라 여성보다는 적은
 실정이다.
 유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90
 % 이상에서 치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암이며 이미 진행
 되었더라도 수술과 항암요법,
 홀몬요법 혹은 방사선치료를
 결합함으로써 50%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암으로써 복합
 치료로써 좋은 효과를 가져오
 는 예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기발견
 만이 확실한 치료를 보장받을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
 활방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질
 병양상도 서구화 되는 추세를
 따른다. 특히 유암은 농촌보다
 는 도시의 거주자에 많이 발생
 하며 빈곤한 계층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도
 시화와 서구화는 식생활에 있
 어서도 육류와 지방들의 고칼
 로리 식으로 변화함으로써 유
 암의 발생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본교
 실에서 행한 실험에서 유암환
 자의 피하지방성분이 대조군보
 다 육류지방성분인 포화지방산
 의 함량이 의미있게 높았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고지방식이
 체내대사과정에서 에스트로젠
 의 분비를 촉진시켜 유암의 발
 생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고지방식은 비만과
 함께 유암의 발생요인으로 설
 명된다.
 둘째 유방암은 한 여성이 여
 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 즉 초경의 시기가
 빠를수록 또 폐경이 늦을수록
 유암의 위험이 높아진다. 우리
 나라 여성에서도 사회적 환경의
 서구화로 과거에 비하여 초경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외에도 임신기간이 유암의
 발생이 더 많든지 유암의 위험도
 높다는 연구도 있다. 특히, 출생
 이 유암과 관련이 있으리라는
 등의 보고는 우리나라 생활습
 관조차도 유암의 발생이 증가
 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단
 적인 증거가 된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암
 발생의 위험인자를 피하는 방
 법으로써, 예를들면 육류, 지방
 식을 줄이고 비만을 피하며 상
 대적으로 채식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 아기를 낳고는 되도록
 모유를 먹이도록 하며 술, 담배
 를 금하는 생활을 하면 되겠다.
 그러나 암의 발생이란 단순히
 이러한 식이나 생활습관의 조
 절만으로 충분히 억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차적 예방차원
 외에도 일단 발생한 유암의 조
 기 발견이 중요하다 하겠다.
 유암의 발생이 1위를 차지하
 는 구미 각국에서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대
 대적인 홍보사업을 벌이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책자

당뇨병성망막증

진보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치가 되지 못하는 난치병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미소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등에 의하여 이들 미소혈관에 병변이 발생되면 다시 정상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망막증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을 취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환자는 혈당관리, 고혈압 환자는 혈압관리가 매우 중요한 동시에 각종의 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관 보호제를 투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나 혈압관리가 잘되고 있는 환자도 병력에 따라 망막증의 발병율이 증가되므로 설명의 원인이 되는 망막증의 예방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왜! 후루다렌을 복용하는가?

망막증에 대한 후루다렌의 약효 입증!

후루다렌®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렌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80%이상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렌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 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건강의 빛」
삼일제약

후루다렌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약물중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임상효과가 입증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최근 당뇨병 및 고혈압의 혈관 합병증 치료제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은 후루다렌의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국내8개 의과대학 부속병원 안과학교실에서 Multi Center Study를 12개월간 실시후 종합평가의 결과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 약80%이상 호전 또는 안정되는 양호한 성적을 얻었으며 또한 내약성도 매우 우수한 약물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망막증의 초기단계에서 후루다렌을 투여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후루다렌은 당뇨병성 백내장, 신경증 및 신증 등의 당뇨병 관련합병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를 나타낸 바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의 미소혈관 합병증을 치료관리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연구결과 함께 아래 사항을 꼭이 보셔야만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한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1. 나이 : 60세 이상
 2. 포도막염
 3. 당뇨성 망막증
 4. 당뇨성 백내장
 5. 당뇨성 신증